

“청소년들의 연구논문,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안 담아”

전국 청소년 학술대회, 진안서 개최

‘지속가능한 마을의 미래’를 위한 제1회 전국 청소년 학술대회’가 최근 진안마이종합학습장에서 전국 37개의 동아리, 2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의 모델’, ‘지속가능한 환경과 개발’ 청소년이 생각하는 미래사회’라는 3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등 각 지역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그 동안 준비한 소논문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학문적인 성과를 증명하였다.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은 ‘농산촌 청소년 청년의 정착과 안정적인 자립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백화영고 인문학탐험 2~3학년팀이 수상했다.

장수 진안지역 고교생 2백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 연구논문은 청년세대의 실질적인 농촌정착, 지자체 정책, 학교교육과정 개설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

동아리 대표 육아름 학생은 ‘인문학 탐험 동아리 학생들 모두가 설문조사, 분석, 논문 작성, 발표 등의 모든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한 결과가 오늘 수상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진안교육지원



‘지속가능한 마을의 미래’를 위한 제1회 전국 청소년 학술대회’가 최근 진안마이종합학습장에서 전국 37개의 동아리, 2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청 최병훈 장학사는 심사평을 통해 “청소년들의 연구논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대회가 더 좋은 학술대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학교 앞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캠페인 실시

진안군은 12일 진안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계 공무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식품 중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안 먹기, 달고 짜지 않게 먹기 등 홍보 물품과 리플렛 등을 배부하면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29개소에 대해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식품 보존과 유통기준 및 냉장·냉동 시설 온도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근절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장에너지, 군산시 소룡동 학생들 위한 장학금 전달

군장에너지(주)가 지난 11일 오후 군장에너지 본관 2층에서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군장에너지(주)는 매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기반으로 주변지역 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소룡동 중·고등학생 15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3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0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준영 대표 이사는 “장학사업은 군장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 중 가장 의미 있는 나눔활동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소룡동장은 “매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군장에너지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지역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호남스틸철망 김인권 대표, 정읍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정읍 제2산업단지 호남스틸철망(대표 김인권)에서 (재)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김인권 대표는 “정읍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업도 필요하지만 튼실한 장학제도 기반 구축, 지역 현안에 대한 공공기관과 기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도 중요하다”며 “기업에서도 지역 인재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실무 계장단 인권보호 앞장 머리 맞대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실무 계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보다 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자는데 한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다.

법 집행과정상의 절차는 물론 주민과 첫 대면하는 지역경찰까지 전 기능 모든 직원들이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 경찰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친절·공정·신속한 모습으로 주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의결을 모았다.

박원성 부청장은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민일정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는 습관을 갖고 말투·행동에서부터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인권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수 서장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낙오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에 응하는 유연한 조직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경찰서, 어르신 보행자용 반사바람막이 배부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는 12일 무주읍 일원에서 어두운 야간에 길을 걷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빛 반사바람막이 20벌을 배부했다.

특히, 밤길에 폐지를 줍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빛 반사바람막이를 전달하고 생계를 위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보행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니영민 서장은 “지역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산서 서부파출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교통근무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는 12일 관내 초등학교 등학교 시간대에 맞춰 교통근무를 실시했다.

이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보를 위해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점검 및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일반차량의 통합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과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서부파출소 관계자는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발견하고 스티커 부착 등 위험지도를 배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호 (서노출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6789-0388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66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845-9366	광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966	정읍지사 538-30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OLLABUR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쁜 학교 소식

행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신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